

신소설의 정치성 재고(再考)

정병설*

『혈의 누』와 『은세계』를 중심으로

초록 신소설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소설을 표방했고, 연구 초기부터 일본 정치소설과의 연관성을 말했으니, 일찍부터 정치성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는 김윤식의 논문은 신소설을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 단정 지어 이후의 연구방향을 이끌었다. 신소설이 일본의 정치소설에서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일본 정치소설에서 다룬 정당, 의회, 민권 등 정치에 관한 것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한 듯하다. 이후의 여타 선행연구에서도 신소설의 정치성을 ‘누락’, ‘비가시성’, ‘유사’ 등으로 표현하며 정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소설 창작 주체나 초기연구에서는 정치성이 강하다고 보았으나 후대의 연구에서는 거꾸로 정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본고는 신소설에 정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종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결여로 판정할 때의 비교대상은 일본 정치소설과 그 배경이 된 정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김윤식 등 선행연구는 일본의 정치 상황을 잘못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했다고 보았다. 일례를 들면 김윤식은 일본의 메이지 신정부가 처음부터 입헌군주제를 시행한 것처럼 서술했으나, 입헌군주제는 민권운동 등의 결과로 후대에 얻어낸 성과였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입헌군주제가 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천황제와 귀족정이 타협한 수준의 정치체제였다. 일본 정치소설 중에는 민권을 다룬 작품도 있지만, 독립, 건국, 부강한 국가 만들기 등 국권론이 작용한 작품이 많으며, 정치소설사의 종말 또한 국권론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조선 후기에 천주교, 동학 등 평등 의식을 강화한 교리가 꽃을 피우면서 민간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는 동학농민전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고양된 인민의 평등적 정치의식은 고종이 전제정치

를 표방하면서 엄격한 전제왕정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다시 지배권을 강화하자 전제왕정 조선의 지배력이 약화했고 이 틈에 새로운 정치의식을 담은 신소설이 나왔다. 한국은 민중의 강력한 결집력이 전제왕정과 외세의 지배력을 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그 틈새에서 나온 신소설의 정치성을 결코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은세계』를 중심으로 신소설의 정치성을 살펴보면, 먼저 작품의 배경이 전쟁, 민중 수탈 등 정치와 직접 연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술자 또는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당대 현실을 그렸다는 점과 유학의 대상지로 미국을 설정하였다는 것도 신소설의 정치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소설처럼 국가의 흥망을 그리거나 정치가를 등장시켜 민권을 논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정치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당시 한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소설은 당대로서는 최대치의 정치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개념을 권력 배분에 초점을 맞춘 현대 정치학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론을 중요하게 취급한 당대의 지배적인 개념으로 보거나, 아니면 현대식이라 해도 랑시에르 식으로 정치적 변혁을 중심에 두고 파악할 때, 신소설의 정치성은 더욱 명료히 인식된다. 전제왕정의 극도로 억압적인 정치 현실하에 있다가, 러일전쟁에서 승진한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한 상황을 틈타 겨우 얻은 표현의 기회에, 당대로서는 가장 치열한 정치의식을 지닌 신소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주제어 신소설, 정치소설, 혈의누, 은세계, 정치체제

1. 서론

1906년 『대한매일신보』의 『명월기연』 광고문에 신소설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¹ 새로운 역사장르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은 『혈의 누』(血의淚)가 처음이다. 『혈의 누』는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을 때는 ‘소설’이라고 병기했으나, 1907년 단행본으로 간행하면서 ‘신소설’이라고 했고, 이로부터 『귀의 성』, 『자유중』, 『은세계』(銀世

— www.kci.go.kr

1 이재선(1972),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서울: 일조각, p. 12.

界), 『추월색』, 『구의산』 등의 작품에도 이 이름을 붙였다. 그렇다면 신소설은 종전의 소설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새로울까? 신소설의 새로움은 제재, 주제 등 내용적인 부분 외에 서사구조와 문체 등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² 그 새로움의 핵심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사는 인간 삶의 근본 변화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계된 정치다. 신소설은 전제왕정이 상상 가능한 유일한 정치체제라는 것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시기에 등장했다. 새로운 정치적 요구, 정치체제의 변혁과 맞물린 시점에서 등장한 작품이 신소설이다.

신소설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소설의 첫 작품인 『혈의 누』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은세계』에 ‘정치소설’이라는 말을 붙여 광고하였던 데서 짐작할 수 있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 광고에 ‘정치소설 혈루 하편’, ‘정치소설 은세계’로 ‘정치소설’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이다.³ 또한 신소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문학사적 서술이라 할 임화의 『신문학사』(1939)에서는 신소설의 등장을 서술하기에 앞서 ‘정치소설과 번역문학’이라는 절을 두어, “신소설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수입된 정치소설과 번역문학이 신소설 출현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⁴ 여기서 정치소설은 1880년대 일본에서 널리 읽힌 정치적 계몽을 위해 지은 일군의 소설이며, 번역문학은 한글로 번역된 주로 역사전기류의 작품들이다. 임화 또한 신소설의 새로움에 정치적 성격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이후 신소설과 정치성의 문제는 세리카와 데쓰요(芹川哲世)의 「한일 개

2 최원식(1981), 「개화기소설 연구사의 검토」, 『신문학과 시대의식』, 서울: 새문사.

3 윤영실(2020), 「은세계의 정치성과 인민의 ‘대표/재현’이라는 문제」, 『구보학보』 24, 구보학회, pp. 226-228.

4 임규찬·한진일 편(1993), 『임화 신문학사』, 서울: 한길사, pp. 157-158.

화기 정치소설의 비교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⁵ 그는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정치소설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폈으나, 막상 본격적인 비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정치소설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고 그 수준도 정치소설로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 등 문답체 서사체나 번역으로 밝혀진 『금수회의록』 같은 작품을 빼면, 『은세계』 정도가 겨우 남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두 나라 정치소설의 차이점을 “일본에서는 주로 자유민권운동을 통해서 자유민권사상과 국권신장사상을 고취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애국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국권회복과 민족주의적 항일사상을 불어넣었다는 점”이라고 요약했다.⁶

이어 후대 연구에 깊은 영향을 준 김윤식의 논문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에서는 신소설이 가진 정치적 동기는 무시할 수 없으나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 또는 내용은 찾아지지 않는다며 신소설을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라고 명명했다.

당초 그(이인직; 인용자 주)의 포부란 신문사 주필이나 사장이 됨으로써 정당정치의 대의사로서 그 당의 정견을 펴는 정치소설가로 천하를 주름잡는, 저 『가인지기우』나 『설중매』 또는 『경국미담』의 작자를 본받음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그 연장선에 있던 만국공민회가 이미 보부상에 의해 해체된 지 오래이며, 의회정치는커녕 바야흐로 일본 총독정치가 시작된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 정치소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정치소설의 결여형태인 『혈의 누』를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⁷

5 세리카와 테쓰요(1975), 「한일 개화기 정치소설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세리카와 테쓰요(1975), p. 122.

7 김윤식(1983),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이인직의 경우」, 『한국학보』 31, 일

이인직은 도쿄정치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미야코 신문(都新聞)에서 견습생을 지냈다. 정치와 언론을 공부했으니 민주주의나 공화정 등 서양의 정치체제에 대해 대략이라도 모를 리 없고⁸ 그것을 한국에 돌아와 실현하려는 포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소설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세세히 펼쳐 보이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민권운동이 부진한 상태에서 식민화가 진행되던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찾았다.

김윤식의 위와 같은 신소설에 대한 성격 규정은 아직도 학계에서 충분히 재검토되지 않은 채 통용되는 듯하다.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정치소설이 가진 것을 한국의 신소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의 누』는 갖지 못했다는 것인데, 논문에서는 일본 정치소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의 누』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연구자들은 신소설에 나타난 일본 정치소설 또는 정치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혈의 누』에서는 구체적인 일본 정치소설의 영향을 잘 찾지 못했으나, 『은세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품이 거론된 바 있다.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는 『은세계』가 일본 최초의 정치소설인 『정해파란』(情海波瀾)에서부터 나타난 의민(義民)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면, 특히 연극으로 공연된 『좌창의민전』(佐倉義民傳)에 주목했다.⁹ 그러나 의민 이야기라면 굳이 일본 정치소설을 찾을 이유가 없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등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지사, pp. 70-71.

- 8 다지리 히로유키(2006), 『이인직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p. 43에서 이인직이 『사회학』에 대한 저술을 내놓은 것이 도쿄정치학교 시절에 배운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의 『국가학』(國家學)이나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의 『열강정치제도』(列強政治制度) 등 강의에 힘입은 것임을 말했다.
- 9 다지리 히로유키(2006), p. 110 및 p. 167; 다지리 히로유키(2008), 「현실을 투영/구성하는 <은세계>: 문명사와 유교주의 그리고 친일의 교착」,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 10 김종옥(2006), 「개화기 소설의 구술성과 기술성」,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p.

신소설을 ‘결여형태’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노연숙은 “대부분의 정치소설은 신소설로 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소설의 정치성이 삭제되거나 누락되어 오히려 신소설적인 정치소설 또는 정치서사의 모형이 예비되기에 이른다.”¹¹라고 했고, 윤영실은 “근대계몽기에 ‘정치소설’이라는 용어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정치’는 일련의 서사들에 비가시적 형태로나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했다.¹² 또한 변안작 『설중매』에 국한한 의견이긴 하지만 일본문학 연구자인 김순전은 변안작 『설중매』를 ‘유사정치소설’로 평가하기도 했다.¹³ 신소설에서 정치는 ‘삭제’ ‘누락’되었거나 ‘잘 보이지 않고’ 기껏해야 ‘사이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다른 형태로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크게 보면 김윤식의 ‘결여성’이 말을 바꾸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신소설의 정치적 결여성을 선행연구에서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윤식은 결여의 원인으로 민권운동의 부진을 들었다. 그는 일본 정치소설의 특징을 ‘민권운동’, ‘권선징악’, ‘서양문학의 영향’, ‘사족 출신의 정치운동가’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중 신소설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정치 배경으로서의 민권운동에 대해 정치소설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강력한 입헌군주제를 시행한 관의 독주와 이에 맞선 민권과 사이의 대결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881년에서 비롯된다.”¹⁴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일본 정치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입헌군주제는 민

12에서도 “신연극 『은세계』와 일본 연극”을 연결시킨 다지리의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 11 노연숙(2015), 『동아시아 정치서사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 지식산업사, p. 390.
- 12 윤영실(2020), 「세계문학, 한국문학, ‘정치소설’의 번역(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0, 한국현대문학회, p. 245.
- 13 김순전(2014), 『한일 경향소설의 선형적 비교연구』, 제이앤씨, pp. 137-140.
- 14 김윤식(1983), p. 66.

권과 투쟁의 결과로 성취한 것이지, 메이지유신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김윤식은 중요한 정치체제 변화의 선후를 잘못 읽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 민권운동의 성취 또한 과장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으니, 후술하겠지만 민권과 투쟁의 결과로 얻은 입헌군주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나마 일부를 성취하자 바로 운동의 동력을 잃고 국권론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치 상황과 정치소설에 대한 과대평가가 신소설에 대한 폄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신소설 정치성의 수준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선행 형태라 할 수 있는 일본 정치 상황과 정치소설의 수준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신소설 출간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치소설에 대해서는 노연숙, 표세만 등의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고,¹⁵ 신소설 등장의 국내 정치적 배경은 구장률과 윤영실 등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졌다.¹⁶ 그러나 아직 일본 정치 상황의 역사적 변화를 정치소설의 전개와 제대로 연결시켜 이해한 연구는 보이지 않으며, 신소설의 출현 배경도 전대, 곧 조선 왕정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정치적 배경에 대한 적절한 역사적 이해가 없으니 신소설이 지난 정치성의 수준도 온당히 평가되지 못한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본고는 ‘삭제’, ‘누락’, ‘비가시성’, ‘유사’ 등을 포괄하여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 신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한다. 현대적 시각에서는 신소설의 정치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대의 정치 상황, 곧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정치체제와 민권의 이해 수준, 그리고 그 서사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결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

15 노연숙(2015); 표세만(2002), 「우키시로 모노가타리 논쟁(浮城物語論爭)의 의의: 1890년대 <문학>의 행방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1,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16 구장률(2006),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인직과 혈의 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윤영실(2020), 「혈의 누와 만세보 논설을 통해 본 이인직의 정치사상」, 『한국근대문학연구』 21(1), 한국근대학회.

소설은 당대의 상황과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나름 강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소설의 정치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선정된 신소설 작품은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은세계』다.¹⁷ 신소설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려면 신소설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신소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움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혈의 누』는 신소설의 첫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은세계』는 정치성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대표 작품이다. 임화는 “『은세계』는 『혈의 누』와 더불어 조선소설사상 구소설의 양식과 권선징악적 모티브에서 해방된 최초의 작품들로서 그중에도 『은세계』는 걸작의 이름에 해당하는 소설”이라고 했다.¹⁸ 신소설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는 데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작품으로 이 밖에 김윤식이 『은세계』와 함께 준정치소설이라고 명명한 『금수회의록』이 있으나, 이는 최근 일본소설의 번역에 가까운 번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⁹ 또한 이 해조의 『자유종』(1910)도 비교적 정치성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작품은 여성들이 격변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내용을 담

17 『혈의 누』는 1907년 발행된 광학서포본을, 『은세계』는 1908년 발행의 동문사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각각 『한국신소설선집』[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제1권과 제2권에 실린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혈의 누』는 1907년 『제국신문』에 연재된 하편이 있고, 뒤에 1913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되고 동양서원에서 간행된 역시 하편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이 있다. 전자는 11회까지만 연재하다가 그쳐 미완이 되고 말았고, 『모란봉』은 시대적, 서사적 긴장을 잃은 통속적 작품이 되고 말았으니, 본고에서는 이들 하편까지 굳이 대상에 넣지 않는다. 『혈의 누』 하편 등의 판본과 작가 문체에 대해서는 김영민(2013), 「제국신문 소재 혈의 누 하편 연구」,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참조. 『제국신문』에 연재된 하편은 『한국신소설선집』의 제1권에 번역 수록되어 있고, 『모란봉』은 제2권에 있다. 한편 『은세계』는 1907년 신문에 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연재본은 남아 있지 않다.

18 임규찬·한진일 편(1993), p. 188.

19 서재길(2011), 「금수회의록의 번안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서재길(2017), 「경찰 기록으로 본 금수회의록 텍스트의 생산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연구소.

은 풍속 개량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굳이 연구대상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성을 논하기 전에 정치의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말은 근대 이전에도 사용되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개념이 크게 변했다. 근대 이전에는 제왕이 국가와 백성을 다스린다는 정도의 의미였으나,²⁰ 근대 이후는 여러 부문 권력의 조정을 의미한다. 현재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²¹ 한국에 처음으로 서양의 정치를 소개한 유길준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치학을 강의한 독일 교수 라트겐의 『정치학』을 번역하여 1907년 『만세보』에 일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책은 국가편, 헌법편, 행정편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길준은 이 가운데 국가편만 소개했으니, 안국선 등이 편찬한 동시기 다른 정치학 소개서를 보아도 이 무렵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론이었다.²² 신소설이 간행될 무렵 정치 개념의 주요한 요소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국가론이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또한 신소설이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넘어가는 변혁 시기의 소산임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적당한 정치 개념으로 정치철학자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것을 참조한다. 랑시에르는 정치의 정의를 좀 더 미시적으로 나누어보고 있는데,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을 “이질발생적인 두 과정” 즉 “통치의 과정”과 “평등의 과정”의 마주침이라고 하면서, 전자는 공동

20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는 『서경』 『송서』 등 중국 역사책을 인용하여 “政事得以治理, 政事清明, 政事的治理” 곧 ‘알맞은 통치’ 정도로 뜻풀이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 ‘정치’를 검색해도 대략 이 정도의 의미로 전근대 한국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최영진(2013),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개념 비판」, 『21세기정치학회보』 23(3), 21세기정치학회, p. 1.

22 김태진(2019), 「유길준의 정치학을 통해 본 근대 동아시아 ‘정치학’의 수용 과정」, 『사이판SAI』 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 120, 138, 143.

체의 “자리와 직무를 위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고 하며 이를 치안(la police)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후자는 “아무나와 아무나 사이에 평등 전제와 그 전제를 입증하려는 고민에 이끌리는 실천들의 놀이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 놀이에 가장 적합한 이름은 “해방”이며, 이 해방 과정에 정치(la politique)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²³ 요컨대 종전의 정치 개념을 치안이라고 부르면서, 평등 전제를 입증하려는 해방의 움직임을 현실적인 의미의 ‘정치’로 보며, 치안과 정치의 마주침을 포괄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제왕정에서 벗어나서 인민의 견제와 지배가 강화되는 입헌군주제, 공화정,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과정을 ‘정치’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당대와 현대의 이러한 정치 개념에 유의하면서 신소설의 정치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19세기 말 일본의 정치와 정치소설

1853년 미국이 내항(來航)하여 수교를 맺으면서 일본은 서양과 더욱 활발히 교섭하였다. 서양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는 중 1866년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의 초편이 간행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내부의 변혁을 불러왔으니 마침내 1868년 메이지유신이 시작되어 막부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였다. 신생 메이지정부는 권력 기반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밖으로는 물론 안에서도 도전을 받았다. 그 하나가 187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민권운동인데, 자유민권파들은 1874년 민선의원 곧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건백서(建白書)를 올리며 대정부

23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p. 27 및 pp. 112-115.

투쟁을 본격화했다. 기반이 약한 신생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고, 1881년 9년 후인 1890년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천황이 직접 약속했다. 전술한 김윤식의 이해처럼 “명치유신을 계기로 강력한 입헌군주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유신 후 시행된 중앙집권적 천황제가 민권과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양보의 결과로 입헌군주제가 세워졌던 것이다.

정부가 정치체제의 개혁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치가들은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토론을 벌였으니 그것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 1880년대에 성행한 정치소설이다. 정치소설은 『정해파란』(情海波瀾, 1880)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백 종이 출간되며 성황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경국미담』(經國美談),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 『설중매』(雪中梅)는 3대 정치소설로 꼽히며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번역 또는 번안되어 널리 읽혔다.²⁴

『경국미담』은 고대 그리스 테베의 지사들이 아테네, 스파르타와의 경쟁 상황에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며 국가를 경영한 역사를 그린 작품으로 일종의 역사소설이다. 작가는 자유민권운동가인 야노 류케이(矢野龍溪)이며 작품 자체에 ‘정치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1883년과 1884년에 초편과 후편이 각각 출간되었다.

『가인지기우』는 명성왕후 살해 사건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시바 시로(柴四郎)가 쓴 것으로 1885년에 초편이 출간되었고, 제2편과 제3편은 1886년, 제4편의 권7은 1887년, 제4편의 권8은 1888년, 제5편 1891년, 제6편과 제7편, 제8편은 1897년에 간행되었다. “『가인지기우』의 상편은 아이즈(會津) 번 유민인 도카이 산시(東海散士), 아일랜드 독립투사 코렌(紅蓮), 스페인 혁명운동가 유란(幽蘭), 그리고 명나라 유신 덩판칭(鼎範卿) 4인의 인재(佳人)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독립각(Independence Hall)에서 만나 전 세계를 무대로 약소민족의 혁명 서사를 흥미진진하게 펼치는 내용으로 진행된

24 山田有策·前田愛 注釋(1974), 『明治政治小説集』, 東京: 角川書店에 『경국미담』과 『설중매』가 실려 있다. 『가인지기우』의 원문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다.²⁵ 망한 나라의 인재들이 자기 나라의 회복을 논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설중매』는 스에히로 뎃초(末広鐵腸)에 의해 1886년 간행된 것으로, 발단부에 2040년 일본에 국회가 개설된 지 15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설정을 두었고, 소설 전체의 액자구조 안에, 국회 설립 운동의 주역인 주인공의 일대기를 서술하였다. 주인공은 1880년대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젊은이로, 우여곡절 끝에 약혼자와 재회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정치인인 주인공이 정치논설을 편다는 점에서 정치소설적 성격이 있으며, 남녀의 재회를 그린다는 점에서 연애소설적 성격도 있다.

민권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정치소설을 떠올렸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3대 정치소설의 실제 면면을 보면, 의외로 민권운동과의 관련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국미담』과 『가인지기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약소국의 독립과 건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 정치소설에서 정치의 의미가 민권보다는 독립과 건국에 있다고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민권 역시 새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니, 일본 정치소설에서 정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가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소설의 근본 성격은 후대적 변모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889년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선포되고 이듬해 국회가 개설되면서 자유민권과의 요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자, 정치소설은 동력의 한 축을 잃으며 주된 논의 방향을 국권론, 그것도 제국주의적 국권론으로 몰고 갔다.

『경국미담』 작가인 야노 류케이는 1890년 정치소설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해양소설’로 명명한 『부성물어』(浮城物語)를 출간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아프리카 연안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섬을 점유하려고 출범한

25 백지운(2016), 「연대와 적대: 佳人之奇遇의 아시아 인식의 이율배반」, 『일본학보』 106, 한국일본학회, p. 152. 작품의 후반부인 권10과 권16에는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도망한 김옥균까지 등장시키고 있는데, 김옥균은 이 작품의 상편 권2에 발문(跋文)을 쓰기도 했다.

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제국주의적 사상을 담은 소설이다.²⁶ 헌법이 선포되고 국회가 개설되자 민권론은 힘을 잃었고, 국권론은 종전 『경국미담』, 『가인지기우』가 보여준 약소국이 독립하여 나라를 만드는 독립론적 국권론에서 방향을 바꾸어 외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제국주의적 국권론으로 향했던 것이다.

일본 정치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메이지 시대 일본 민권론의 취약성은 당대에 이미 지적되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일본 여론이 국권론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민권론을 붙잡고 있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낡은 생각을 고수한다며 조소하자, ‘민권론은 구미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실행되어 왔지만 일본에서는 이론으로는 진부하지만 실행으로는 아직 신선하다고 답했다’. 이제 겨우 민권을 알게 된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권의 실행도 보지 못한 채 얼마간 권리를 얻자 민권을 건너뛰고 국권으로 간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²⁷ 그러나 조민 역시 민권을 제한적으로 이해했으니, 그의 유명한 정치논변서인 『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에서 저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인 남해선생(南海先生)의 발언을 통해, 민권을 회복적(恢復的) 민권과 은사적(恩賜的) 민권으로 나누어, 민권 의식이 약한 일본의 현실에서 당장은 천황에게서 받은 은사적 민권으로 민권을 신장케 하자고 했다. 그러면 결국 민권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적 민권이 따라올 것으로 보았다. 민권이라는 것이 시민이 스스로 정치체제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서 출발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강경한 민권파였던 조민조차도 인민의 자기결정권인 민권을 위에서 받아서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본 지식인과 정치소설의 민권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그들이 이론 정치적 성취도 명실이 상부하지도 않았고 그리 대단하지도 않았다. 1890년

26 표세만(2002).

27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2017), 『헌법의 무의식』, 서울: 도서출판b, pp. 96-97.

제국일본은 헌법과 국회를 갖추면서 비로소 외형적으로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은 서양에서 생각하는 입헌군주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니, 당시 일본의 상황을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천황제와 입헌제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지, 그것이 10여 년간에 걸친 정치 투쟁의 쟁점이었다. 형식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천황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서양 각국으로부터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내의 정치적 안정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황이나 보수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²⁸

천황제하에서 헌법과 국회를 갖추어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국의 외양을 갖추었지만, 이는 서양 열강에게 인정받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자 한 것이지 실질까지 그런 체제를 원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천황제와 귀족정을 결합한 형태로 정치체제에 있어서 타협을 보고 말았다. 1889년 선포된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했으니, 입헌을 말했지만 결국 주권을 국민이 아닌 천황에게 두었다. 말로는 입헌이지만 천황은 여전히 법 위에서 군림했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선포 형식을 봐도 일본 입헌군주제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헌법을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下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이 이런 수준이니 이듬해 개설된 국회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민의를 담은 국회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정치 원로들이 지배하는 귀족정이 유지되도록 했다. 국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귀족원 의원은 천황이 임명했고, 중의원 의원은 고액납세자만 피선될 수 있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정치소설이 유통되고 또

— www.kci.go.kr
28 마키하라 노리오, 박지영 옮김(2012), 『민권과 헌법』, 서울: 어문학사, p. 229.

한국에도 소개되어 신소설이 탄생하기까지 일본 정치의 상황이었다.

청일전쟁 후 일본 민권운동의 중심은 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넘어갔으며 여기서 20세기 초의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가 나왔다.²⁹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집권하는 책임내각제에 이른 것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인 1918년 이후였다.³⁰ 신소설이 나온 시기는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추동된 민주화 흐름이 막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으니, 일본조차도 민주주의나 공화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입헌군주제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정치소설이 등장할 무렵의 일본 민권운동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주의할 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에는 있었던 민권운동이 한국에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앞선 서술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의 민권운동은 저열한 수준에 머물렀다. 서양식 민권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섰다 하더라도,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권의 실질에 있어서는 과연 한국보다 나왔을지 의심스럽다. 일본의 민권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한국의 민권 수준이 낮지 않았던 것이다.³¹

3. 신소설 탄생의 정치적 배경

한국은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기에 일본만큼 기민하게 외세에 대응하지 못했다. 18세기 말부터 천주교가 전래되어 널리 퍼졌지만 강한 억압 정책으로 포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와 사상

29 마쓰오 다카요시(2011), 오석철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 서울: 소명출판, p. 16 및 p. 5.

30 한정선(2013),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천」, 『역사와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p. 107.

31 정병설(2025), 『시민 없는 민주주의』, 서울: 문학동네, pp. 189-197에서 근대 초기 동아시아 민주주의 이해의 저열성에 대해 서술했다.

을 정치적 변화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1860년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했으니, 당시 세계의 주변부 중에서도 주변부였던 조선에서, 그것도 조선의 한 모퉁이인 경주에서, 차별받던 서자가 만든 것이었다. 또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최제우를 만나 세상의 이치에 눈을 떴다. 조선의 최하층인들이 교주가 된 종교에서 차별은 무엇보다 배격할 대상이었다. 최시형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회사상을 내놓으며 신분, 남녀, 나이 등으로 극심한 차별이 있던 조선 사회에 무차별의 평등사상을 퍼뜨렸다. 무차별의 사상은 특히 하층민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으니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있던 시기에 교도의 수를 300만 명으로까지 추산할 정도였다.³² 당시 전 조선의 인구가 2,000만 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극심한 탄압을 받던 종교의 교도수가 300만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하층 민중이 동학사상에 공감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정치적 변화의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그것이 바로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변화의 자극은 외부에서 왔으니 출발은 일본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에 항구를 열어주었고, 개화의 바람을 쐬게 된 진보적 지식인과 관료가 1884년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94년의 농민봉기를 청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진압하려다가 일본의 참전을 불러왔고, 한반도로 군대를 보낸 청나라와 일본은 한국을 무대로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서 개혁 정책을 추동하며 지배력을 높였다.

친일파에 의해 장악된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단행했고 민간에서는

32 村山智順(1935), 『朝鮮の類似宗教』, 서울: 朝鮮總督府, p. 54. 1894년 말을 기준으로 삼아 초토사 홍계훈의 상소에 나오는 한 포(包)당 인원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포당 인원을 대략 만 명으로 잡아 『천도교회사』와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에 나오는 339곳의 기포처를 곱하여 대략 300만으로 추산했다.

1896년 독립협회(獨立協會)가 결성되고 『독립신문』이 창간되는 정치적 변혁이 시도되었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대중 운동으로 연결되어 1898년에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등으로 불린 대규모 민중 집회로 이어졌다. 독립협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는 일본식의 입헌군주제에 가깝다 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의회 설립이었다.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하의원’(下議院)의 개설을 주장하다가 수구파 관료와 고종의 반대에 부딪히자 증추원을 개편한 ‘상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으나, 정부는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³³ 대한제국은 독립협회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권(臣權) 곧 민권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공화의 길로 나아가 전제군주정을 위협한다고 보았다.³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한 이후, 통치력이 약해진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더니, 외세의 상호견제 속에 어느 정도 지배력을 회복하자, 1898년 말에 물리력을 동원하여 민중 집회를 해산하고, 마침내 1899년 8월 전제정치를 확실히 천명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선포했다. 이로써 서서히 타오르던 민민의 정치논의는 억압적으로 종결되고 말았다.³⁵

1899년부터 다시 시작된 억압적 전제정치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지속되었다. 1901년 6월 경부협판(警部協辦)이 “누구를 막론하고 서너 명씩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은 강제로 붙잡아오고 그 주위에서 들은 사람은 모두 엄중히 징계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을 게시할 정도로 러일전쟁 전 대한제국의 시국은 살벌했으니,³⁶ 1902년 고종은 익

33 서울대정치학과 독립신문강독회(2004), 『독립신문 다시 읽기』, 서울: 푸른역사, p. 449(전 인권의 해체).

34 『고종실록』 1898년 12월 9일과 11일 조. 1897년 김윤락 등이 올린 상소를 보면 외국을 따라 입헌을 말하는 자는 신권을 중시하고 군권을 없애자는 것으로 그 뜻의 근본은 공화에 있다고 했다.

35 왕현중(2000),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 290-291.

36 정교, 변승주 역주(2004), 『대한제국사』 6, 소명출판, p. 62.

문사(益聞社)라는 사찰기구까지 만들어 황제권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고 했다. 익문사의 규정이라 할 비보장정(秘報章程) 제5조 제7항은 “자유민권을 음창(陰唱)하여 전제정치를 비방하며 정부 득실을 평론하여 인심을 선동하는 자”를 사찰하도록 명시했다.³⁷

그러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승전하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면서, 도리어 대한제국의 엄격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언론에 대한 일제의 사전검열이 실시되고,³⁸ 신문지법 등 각종 표현통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이어져서, 통제가 강화한 듯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한제국의 표현통제보다는 약화된 것이었다. 이 시기의 활발한 저작 출판이 이를 증명한다. 구장률은 “을사늑약으로부터 강제병합에 이르는 약 5년 사이에 구축된 지식담론은 일단 그 양과 다양함에서 이전을 압도한다.”고 했고, “단행본의 경우 1906년 한 해 동안 출간된 수가 1900~1904년 사이에 출판된 서적의 3배를 넘는다.”고 했다.³⁹ 특히 정치적 저술이 다수 간행되었으니, 헌정연구회의 『헌정요의』(1905), 김우식의 『국민수지』(1905-1906), 김상연의 『국가학』(1906), 나진과 김상연의 『국가학』(1906), 안중화의 『국가학강령』(1907), 유길준의 『정치학』(1907), 안국선의 『정치원론』, 정인호의 『국가학사상』(1908) 등이 그것이다.⁴⁰ 특히 1909년의 『서북학회월보』 11호 「국가론의

37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태진(1997), 「제국익문사비보장정: 대한제국 황제 직속 항일 정보기관 규정집」, 『한국사론』 3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해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종이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사찰기관을 만든 것으로 보았으나, 넓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8 구장률(2005), 「근대계몽기 소설과 검열제도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26, 한국문학연구학회, p. 6.

39 구장률(2012), 『지식과 소설의 연대』, 서울: 소명출판, p. 76.

40 김학준(1997), 「대한제국 시기 정치학 수용의 선구자 안국선의 정치학: 그의 생애와 정치학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7(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 42; 김태진(2019), p. 143.

개요』에는 공화제를 “귀족공화”와 “민주공화”로 나누어 소개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민주공화’의 개념 또한 이때 소개되었다.⁴¹ 이 시기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설도 크게 일어났으니, 일진회, 대한자강회 등이 주도했다.⁴²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 별반 민권운동이 없는 듯 말했으나, 비록 서양식의 민권 개념은 아니지만 동학과 갑오농민혁명이 보여준 인민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강렬한 사상과 행동이 있었다. 다만 조선 왕정의 억압을 극복하지 못하여 공화정이나 민주주의는 물론 입헌군주제로도 한발 전진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평등을 향한 정치의 과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러일전쟁 후 조선 왕정의 지배력이 약화하는 순간에 상당한 정치적 논의를 편 신소설이 탄생했다.

4. 신소설의 정치성

한국에서 처음 ‘정치소설’이라는 말을 썼던 작품은 1905년 출간된 박은식이 번역한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로 이는 스위스의 독립영웅 빌헬름 텔(Wilhelm Tell)에 관한 이야기다. 일본의 정치소설과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말에 독립과 건국 또는 나라 만들기의 의미가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본 정치소설이 번역 또는 번안되기 시작했으니, 이른바 3대 정치소설 중 『경국미담』은 1904년에 일부가 번역되었고, 『가인지기우』는 번역본

41 ‘민주공화’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들 때 조소앙이 삽입한 독창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한인섭(200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法學』 5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p. 185-186], 이 예를 보면 맞지 않으며 ‘민주공화’의 영어 표현인 ‘Democratic Republican’은 일찍이 미국 건국기에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42 김종준(2013), 「대한제국기 민권운동 연구의 재인식」, 『한국학연구』 3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587-588.

이 없으나 대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인 근세 이집트의 멸망사를 다룬 『애급근세사』(1889)가 1905년에 번역되었다. 그리고 『설중매』는 1908년 번안본이 출간되었다. 이와 같은 소설사적 상황에서 ‘정치소설’ 『혈의 누』가 탄생했다.

『혈의 누』와 『은세계』를 보면 모두 정치 환경의 변화를 배경에 깔고 있으며 또한 세부에서는 인물들이 정치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혈의 누』는 청일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소녀가 일본군 군의관의 구조를 받아 살아나고 나중에 조선을 부강하게 하려는 뜻을 품은 남성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이야기다. 혁명과 함께 다른 어떤 것보다 급격한 정치적 변동을 불러올 사건인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 속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⁴³ 또 『은세계』는 강원도 부자가 지방관에게 수탈을 당해 죽고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새 나라의 동량이 되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관의 민중 수탈이라는 파렴치하고 참혹한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더욱이 수탈당한 백성 최병도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을 던졌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을 추종한 사람이다. 두 작품 모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품은 작품이다.

두 작품에서 1세대는 모두 전쟁과 수탈로 고초를 겪지만 2세대는 미국 유학을 간다. 그리고 2세대는 모두 유학을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먼저 『혈의 누』에서 주인공 옥련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한 구완서가 귀국 후의 포부를 밝힌 장면을 보자.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

43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선집 1』, p. 8. “평양 선회당에 있는 감사는 몸 성하고 재물 있는 사람은 날날이 잡아가니”라고 부패한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맥 같은 마음이요.⁴⁴

구완서는 미국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일본, 만주와 함께 연방제 국가로 묶는 구상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작품 내에서 구완서가 연방을 말할 시점인 1902년 무렵에는 아시아연대 또는 삼국제휴론이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이 발표된 1906년 시점에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미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국권마저 잃은 상황이었다.⁴⁵ 그러니 자강을 통한 주체적 연방의 구상은 현실성이 없었고, 현실성이 없으니 구완서의 포부는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어려웠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명정치가 비스마르크처럼 자기 나라를 ‘명명한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완서의 꿈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은세계』의 주인공 최병도의 자식 남매인 옥순과 옥남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돌아와 뜻을 채 펼치기도 전에 ‘강원도 의병’ 무리에 납치당하는데 이때 옥남은 의병에게 다음과 같은 훈계를 한다.

동포의 마음에 국권을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긴다 하니, 진실로 분한 마음이 있을진대 먼저 국권 잃은 근본을 살펴보고 장차 국권이 회복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우리나라 수십 년래 학정을 생각하면 이 백성의 생명이 이만치 남은 것이 뜻밖이요, 이 나라가 멸망의 화를 면한 것이 그런 다 행한 일이 있소? (...)

응희 원년 이후로 황제 폐하께서 백성에게 학정하신 일이 무엇이요? 우

44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선집 1』, pp. 54-55.

45 윤영실(2020), pp. 253-254. 김종욱(2023,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역락, pp. 26-29)은 이 연방제가 작품 내에서 옥련 일행이 만난 것으로 나오는 역사인물인 Kang Ywee의 연방론과 내밀하게 조응한다고 읽었다.

리나라 국권을 회복할 생각이 있거든 황제 폐하 통치하에서 부지런히 벌여 먹고 자식이나 잘 가르쳐서 국민의 지식이 진보될 도리만 하시오.⁴⁶

옥남의 세계인식은 고종 치하와 ‘융희 원년 이후’ 곧 1907년 순종 즉위 후를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다. 고종 때의 학정으로 국권을 잃었지만 순종 이후는 학정이 없으니 통치에 순응하며 지식을 진보시키면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순종 즉위 후의 선정이란 현실적으로는 일제 통감부의 통치이므로 지식을 넓혀 국권을 되찾자는 말은 일제 치하에 순응한 상태에서의 자강, 자립의 다른 말이 아니다.

신소설의 정치성은 작품의 배경 또는 주요 사건, 그리고 인물의 발화처럼 현대인의 눈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표나게 드러내지 않지만 당대인이라면 날카롭게 정치성을 느낄 부분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당대의 현실 곧 정치 현실을 그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미국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들은 선행연구에서 신소설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 논의되지는 않은 듯하다.

먼저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그렸다는 것이 무슨 중요한 특징이겠는가 싶지만,⁴⁷ 신소설 탄생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혁신이며 해방인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소설에서 현실은 감히 그릴 수 없는 대상이었으니 기본적으로 한국, 그것도 당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을 찾기 어렵다. 『구운몽』은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춘향전』은 이본에 따라 다르지만 세종 대나 가까워도 숙종 대다. 당대 조선을 그릴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뜻이 작지 않다. 조선 최초의 필화인 『설공찬전』 사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윤희를 그렸

46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선집 2』, pp. 89-90.

47 조동일(1973),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13에서도 신소설의 특징으로 거론한 바 있으나 그 의미를 세세히 따져 정치적 의미를 묻지는 않았다.

다 하여 작가가 파직되는 처벌까지 받았다. 이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니 홍경래의 난을 그린 『신미록』이 난이 발생한 지 50년 만에 서울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소설의 출판 관행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다. 설사 작품이 난을 정부 측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자칫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⁴⁸ 이런 소설사적 상황에서 『혈의 누』처럼 불과 몇 년 전이나, 아니면 『은세계』처럼 바로 작년이나 올해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혈의 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평안도 관찰사가 비록 작품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해도 김만식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은세계』에서 최병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씨 성을 가진 강원도 관찰사가 정태호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은세계』가 연극으로 공연될 때 강원도 관찰사의 집안사람들 또는 후손들이 공연을 막으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다.⁴⁹ 김종옥은 『은세계』에서 강원도 관찰사가 조정의 연줄로 떠받든 ‘여상전’이 무너 진령군임을 밝혀 『은세계』가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임을 분명히 했다.⁵⁰ 비록 허구로 꾸민 소설이라고는 하나 현재를 배경으로 삼아 실제 인물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니, 억압적 정치체제하에서는 두말이 필요하지 않다.

조선의 서적 등에 대한 사상 통제는 현대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다. 특히 출판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는데도 허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 조선 시대에 서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조선 사상통제의 엄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책을 찍지 않았으니 팔 책도 없었던

48 조선시대 사상 및 출판 유통의 금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병설(2016),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68-94, 139-139 참조.

49 서연호(1982), 『한국 근대희곡사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25-26.

50 김종옥(2006), 「개화기 소설의 구술성과 기술성」,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화회, pp. 63-66.

것이다.

흔히 선행연구에서 신소설이 등장할 무렵 문학의 창작과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친 제도적 변화로 신문지법과 보안법(1907) 그리고 출판법(1909)⁵¹ 등의 법률 제정을 언급하면서, 이런 법들로 인해 표현의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⁵² 신문지법 제11조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고, 보안법 제4조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 교사 또는 이용하거나”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으며, 출판법 제11조에서는 “허가 없이 출판한 저작자 발행자”를 처벌한다고 했다.⁵³ 이런 법으로 인해 1909년에는 『금수회의록』이 최초의 금서가 되었고, 『혈의 누』는 대한제국 멸망 이후인 1911년 6월 2일 일제 경무부에 의해 불허기출판물로 지정되었다.⁵⁴ 이런 사정을 보면서 새 법들로 인해 표현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실정과 다르다. 일제에 의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사상 억압이 강화되었다면, 강한 정치성을 띤 새로운 소설, 곧 신소설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제가 제정한 새로운 법률들은 이전에 없었던 통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전근대적인 통제 방식을 근대적 제도로 바꾼 것일 뿐이다. 전통적인 통제가 약화하고 새로운 근대적 통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틈 사이에서 신소설이 탄생했던 것이다.

신소설의 정치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지점은 미국 유학이다. 한국을

51 출판법은 1909년 2월 23일에 발령되었으나, 실제 발효는 1910년 5월 5일 이후에야 이루어졌다고 한다.

52 한 예를 들면 노연숙(2008, 「일본 정치소설의 수용과 한국 신소설의 다층화」, 『인문논총』 5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15)은 “1907년에 제정된 광무신문지법은 일본의 신문지조례와 유사한 형태로, 언론을 규정하고 모든 출판물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말이 전대 혹은 다른 대상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독자에게 이전보다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53 조남현(2012), 『한국현대소설사1』, 서울: 문학과지성사, p. 46.

54 다지리 히로유키(2006), p. 193.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진 주인공들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화소는 『무정』(1917)에까지 이어지는데, 근대소설 주인공이 배우고자 하는 모델 국가로 미국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함의는 선행연구에서 과소평가된 듯하다. 주인공이 새로운 이상세계로 향하는 탈출 서사는 『홍길동전』이나 『허생전』 등 전근대 소설에서도 나타나며, 탈출 자체만으로도 현실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이지만, 전근대 탈출 서사에서는 탈출대상지가 구체적인 정치적 이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⁵⁵ 이에 비해 신소설 이후의 미국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이상을 대표하는 존재다.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인식으로 임선애는 “근대문명의 표준국, 근대지식의 원형국, 기독교리의 실천국”을 들었고,⁵⁶ 조경덕은 신소설에서 미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로 ‘부강하다’,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 친숙하다’, ‘식민화의 야욕이 작아 보인다’는 것을 들었다.⁵⁷ 선행연구에서 문명, 지식, 도덕의 수준이 높은 부강한 국가로 미국을 제시했을 뿐, 그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세세히 거론하지 않았는데, 작품 내에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 해도, 미국을 등장시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말한 ‘문명국’ 미국이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임을 모를 리 없다는 말이다. 이 무렵 출간된 이승만의 『독립정신』(1910)을 보면 정치체제를 전제정치, 헌법정치, 민주정치로 나누는데,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여긴 민주정치를 대표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전제정치는 청산되어야 하며, 민주정치는 당장 조선의 현실에

55 『화서국전』 등에 이상적 공동체의 모델이 가볍게 그려져 있으나 정치체제 면에서는 별만 새로움이 없다. 정병설(1998), 「화서국전(華胥國傳): 조선인들의 유토피아」, 『문헌과해석』 4, 태학사.

56 임선애(2006),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인식 연구: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5, 한국사상문화학회, pp. 38-48.

57 조경덕(2014),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 유학」, 『현대소설연구』 56, 한국현대소설학회, pp. 559-561.

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여겼으나, 그래도 정치체제로서 궁극적 이상은 민주 정치였다.⁵⁸ 미국을 민주정치로 보던 당시의 다른 기록들처럼 공화정치로 보던, 이상적인 정치를 행하는 나라로 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1908년 1월 24일 발간된 『대국학보』 17호에는 초해생(椒海生)이 쓴 「미국에 유학하는 친구에게」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을 “세상의 중심이고 만방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서 “인민은 자유의 대주의(大主義)에 기틀을 두고 사회는 민주의 대기관(大機關)을 주동(主動)”한다고 했다. 미국을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적 정치체제를 구현한 곳으로 본 것이다.

이인직이 공부한 도쿄정치학교의 교장인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비롯하여, 이인직을 직접 가르친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등의 선생님 또한 대부분 외국 유학파였으니, 그것도 미국 유학파가 유럽 유학파보다 더 많았다.⁵⁹ 이인직이 대표적인 정치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을 모를 리 없는 것이다. 또한 『혈의 누』 『은세계』를 포함하여 신소설의 주인공들이 택한 미국의 유학지가 대부분 학술의 중심이라 할 보스턴, 경제의 중심이라 할 뉴욕이 아니라, 정치 일번지로 꼽히는 워싱턴이라는 점도 유학 대상지로서 미국의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감지하게 한다. 『혈의 누』의 주인공 옥련과 구완서는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우연히 Kangweui를 만나 그의 주선으로 워싱턴으로 갔다. 『은세계』에서는 최병도의 자식 남매를 최병도의 절친인 김정수가 안내하여 워싱턴으로 갔다. 최병도는 “김옥균과 같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하기를” 계획한 인물로, 죽을 때 전 재산을 김정수에게 맡겼다. “본래 최병도와 김정수는 국가사상이 머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⁶⁰ 그런 사람이 최병도의 자식 남매를 워싱턴으로 데려갔으니 정

58 이승만(2019), 『독립정신』(우남 이승만 전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p. 108-113.

59 표세만(2019), 「이인직 문학의 주변: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6, 한민족어문학회, p. 331.

60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선집 2』, p. 64.

치적 관심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소설을 현대 정치의 관념에서 보면 전업 정치가가 등장하지도 않고 주요한 정치적 의제를 주제로 삼고 있지도 않으니 정치소설이라고 말하기 부족할 것이다. 일본 정치소설과 비교할 때 국가의 존망을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염려하지도 않고, 사회의 지도자급 지사나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신소설 출현 당시 한국의 정치 현실과 역사를 볼 때 결코 정치성이 약하다 할 수 없다. 더욱이 랑시에르 식의 정치 개념으로 보면, 평등의 전제를 가지고 해방의 과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현실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선명히 정치적 이상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신소설의 정치성을 결여, 누락, 비가시성 등의 말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신소설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소설을 표방했고, 연구 초기에도 일본 정치소설과의 연관성을 말했으나, 후대의 연구에서는 ‘결여’, ‘누락’, ‘비가시성’, ‘유사’ 등으로 표현하며 정치소설과 달리 정치성이 부족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당대에는 정치적이라고 한 작품을 후대에는 별로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 어찌 보면 모순적인 이 상황을, 본고는 당대 일본과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소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재검토하고자 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선행연구는 근대 초기 일본의 정치 상황을 과대평가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일본의 입헌군주제를 과대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정치소설이 보여준 정치의식의 수준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 일본 정치소설의 중심은 민권론보다 국권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수적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점을 간과했고, 거꾸로

신소설의 정치의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신소설을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 이해했던 것이다.

신소설 역시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부강한 나라 만들기라는 일본 정치소설의 흐름을 잇고 있으나, 정치소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니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소설이 입헌군주제의 큰 틀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다양한 정치적 논의들이 일어날 때 등장했다면, 신소설은 전제왕정이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지배로 살짝 힘을 잃은 상태에서 나타난 작품이다. 이미 한발 앞서 형식적이거나 입헌군주제를 성취한 일본이 조선에서 지배력을 높이면서 전제왕정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전진시키려는 문제의식과 결합하며 신소설이 탄생한 것이다.

서사는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삼으니,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경제와 정치 체제의 변화는 반드시 서사의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신소설은 체제 변혁기의 역사적 산물이다. 비록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모두 대변혁의 흐름 속에 있음은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자료

- 김영민(2008),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 2: 한성신보』, 소명출판.
 이승만(2019), 『독립정신』(우남 이승만 전집 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인직(1907), 『혈의 누』, 서울: 광학서포[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 전집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인직(1908), 『은세계』, 서울: 동문사[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2003), 『한국신소설 전집 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교, 변승주 역주(2004), 『대한계년사』 6, 소명출판.
 山田有策·前田愛 注釋(1974), 『明治政治小説集』, 東京: 角川書店.

논저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2017), 『헌법의 무의식』, 서울: 도서출판b.
- 구장률(2005), 「근대계몽기 소설과 검열제도의 상관성」, 『현대문학의 연구』 26, 한국문학연구학회.
- 구장률(2006),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이인직과 혈의 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구장률(2012), 『지식과 소설의 연대』, 서울: 소명출판.
- 김순전(2014), 『한일 경향소설의 선형적 비교연구』, 서울: 제인앤씨.
- 김영민(2013), 「제국신문 소재 혈의 누 하편 연구」,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 김윤식(1983),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이인직의 경우」, 『한국학보』 31, 일지사.
- 김윤식, 정호웅(2000), 『한국소설사』, 서울: 문학동네, 2000.
- 김중욱(2006), 「개화기 소설의 구술성과 기술성」,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 김중욱(2023),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역락.
- 김종준(2013), 「대한제국기 민권운동 연구의 재인식」, 『한국학연구』 3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태진(2019), 「유길준의 『정치학』을 통해 본 근대 동아시아 ‘정치학’의 수용과정」, 『사』 27, 국제한국문화학회.
- 김학준(1997), 「대한제국 시기 정치학 수용의 선구자 안국선의 정치학: 그의 생애와 정치학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7(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노연숙(2008), 「일본 정치소설의 수용과 한국 신소설의 다층화」, 『인문논총』 5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노연숙(2009), 「20세기 초 동아시아에 流通된 經國美談 比較考察: 玄公廉의 經國美談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7(4), 어문학회.
- 노연숙(2015), 『동아시아 정치서사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 지식산업사.
-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2006), 『이인직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다지리 히로유키(2008), 「현실을 투영/구성하는 <은세계>: 문명사와 유교주의 그리고 친일의 교착」,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 마쓰오 다카요시(2011), 오석철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 서울: 소명출판.
- 마키하라 노리오, 박지영 옮김(2012), 『민권과 헌법』, 서울: 어문학사.
- 문준영(1999),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20, 한국법사학회.
- 백지운(2016), 「연대와 적대: 佳人之奇遇의 아시아 인식의 이율배반」, 『일본학보』 106, 한국일본학회.
- 서연호(1982), 『한국 근대회교사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서영희(2000),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와 일제 통감부」, 『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 서영희(2012), 『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러일전쟁에서 한일병합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 서울대정치학과 독립신문강독회(2004), 『독립신문 다시 읽기』, 서울: 푸른역사.
- 서재길(2011), 「금수회의록의 번안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 서재길(2017), 「경찰 기록으로 본 금수회의록 텍스트의 생산 과정」, 『민족문화사연구』 65, 민족문화사연구소.
- 세리카와 데쓰요[芹川哲世](1975), 「한일개화기정치소설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실(2020a), 「은세계의 정치성과 인민의 ‘대표/재현’이라는 문제」, 『구보학보』 24, 구보학회.
- 윤영실(2020b), 「혈의 누와 만세보 논설을 통해 본 이인직의 정치사상」, 『한국근대문학연구』 21-1, 한국근대문학회.
- 왕현중(2000),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이재선(1972),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서울: 일조각.
- 이지영(2021), 「량치차오의 근대화 번역 기획: 정치소설 가인기우(佳人奇遇)와 모험소설 십오소호걸(十五小豪傑) 번역 실천(1898~1903)을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23(3), 한국통역번역학회.
- 이태진(1997), 「제국익문사비보장정; 대한제국 황제 직속 항일 정보기관 규정집」, 『한국사론』 3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임규찬·한진일 편(1993), 『임화 신문학사』, 서울: 한길사.
- 임선애(2006),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인식 연구: 이인직과 이해조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5, 한국사상문화학회.
- 임혁백(2021),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서울: 김영사.
- 정병설(1998), 「화서국전(華胥國傳): 조선인들의 유토피아」, 『문헌과해석』 4, 태학사.
- 정병설(2016),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병설(2025), 『시민 없는 민주주의』, 서울: 문학동네.
- 조경덕(2014),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 유학」, 『현대소설연구』 56, 한국현대소설학회.
- 조남현(2012), 『한국현대소설사1』,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동일(1973),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원식(1981), 「개화기소설 연구사의 검토」, 『신문학과 시대의식』, 서울: 새문사.
- 칸 미츠히라(管光晴)(1999), 「雪中梅의 翻案樣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세만(2002), 「우키시로 모노가타리 논쟁(浮城物語論爭)의 의의: 1890년대 <문학>의 행방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1,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표세만(2019), 「이인직 문학의 주변: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6, 한민족어문학회.
- 한인섭(200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法學』 5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한정선(2013),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천」, 『역사와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 村山智順(1935), 『朝鮮の類似宗教』, 서울: 朝鮮總督府.
- 布袋敏博(1998), 「二つの朝鮮語訳 経国美談について」, 『近代朝鮮文学における日本との
関連様相』, 東京: 緑陰書房, 1998.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9일

ABSTRACT

Reconsidering the Political Element of Sinsosol (New Novels)

Jung, Byungsul*

Focusing on *Hyeoruiinu* (Tears of Blood) and
Eunsegye (Silver World)

From the inception, sinsosol (new novels) were touted as political novels, and the connection to Japanese political novels was discussed in early research, so the political element has long been a subject of attention. Kim Yun-sik's representative paper on this topic definitively characterized sinsosol as an "deficiency of the political novel," which guided the direction of subsequent research. While it did not specifically enumerate what was lacking compared to Japanese political novels, it was generally understood that sinsosol omitted political topics such as political parties, parliaments, and civil rights, which were covered in Japanese political novels. Other subsequent studies also used terms like "omission," "invisibility," and "similarity" to describe the political element of sinsoso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opinion that sinsosol lack political element. The comparison points used to determine this lack were the Japanese political novels and their underlying political situations. I argue that prior research, including Kim Yun-sik's, misunderstood the Japanese political situation and overestimated its level. For example, Kim Yun-sik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cribed the Meiji New Government as implementing a constitutional monarchy from the start, but this was a result achieved later through civil rights movements. Even then, it did not become a proper constitutional monarchy. Furthermore, while some Japanese political novels dealt with civil rights, many works focused predominantly on national rights (independence, nation-building, creating a wealthy and powerful nation), and political novels ultimately converged on the theme of national sovereignty.

Examining the political element of sinsosol, focusing on Yi Injik's *Hyeoruinu* and *Eunsegye*, reveals that the works' backgrounds are directly related to politics, such as war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opulace. Furthermore, the narrators or characters speak of new politics. The depiction of contemporary reality and the setting of the United States as a destination for study abroad also demonstrate the political element of sinsosol. Because these works are not like Japanese political novels that depict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or feature politicians debating civil rights, they might be evaluated as lacking political content from a modern perspective.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Korea faced at the time, as well as the previous political situation, sinsosol can be said to have the maximum level of political content possible for that era.

Keywords Sinsosol (New Novel), Political Novel, *Hyeoruinu* (Tears of Blood), *Eunsegye* (Silver World), Political System

